



2013

9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45호

발행 : 우용태 010-9301-2223 / 총무 : 김석백 010-5488-9871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chegal44@gmail.com



孫子の 눈으로 보는 세상
할아버지가 보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김학영



동문의 이력

GK(Gloval Korea)
미래전략 개발원 상임이사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전 국방대학원 교수
미국방대학원 객원교수

10년 전쯤 미국에 거주하는 딸 내외와 같이 자동차로 뉴욕 맨허튼을 드라이브하던 중 내가 앉아 있던 앞 유리창에 새가 배설한 배설물이 부닥쳐서 흔적을 남겼다.

1 살 반짜리 손자 왈 “하부지 저게 뭐예요?”

“새가 하늘을 날다가 똥을 싸서 그것이 유리창에 떨어진 거란다” 그 소리를 듣자 대뜸, “하부지 그러면 새도 나처럼 기저귀를 채우면 되겠네!”

차안에 있던 우리가족은 모두 박장대소하였다. 그 당시 손자 나이 1살 반으로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였다. 새에게도 자기와 같이 기저귀를 채우면 차 유리창에 똥 싸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의 천진난만한 마음의 발로였던 것이다. 미국가정은 카펫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 아기보다 기저귀를 1년 정도 더 채워야 한단다.

이 날 손자의 말 한마디는 온가족을 즐겁게 하였다. 오염되지 않은 아기의 천진난만한 표현이다. 어른들이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족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큰 딸네는 아들 하나이다. 학생부부로서 애하나 키우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임신 때문에 학기를 쉬어가면서 딱 박사학위니 얼마나 귀중하겠는가?

그런 아들을 키우면서 집안에서는 영어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한국말만 사용하였다. 이는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인은 한국말을 완벽히 구사하여야 한다는 딸 내외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손자는 ‘할아버지’를 ‘하부지’라고 부른다. ‘할아버지’란 발음이 어려운 모양이다. 커가면서 달라지겠지!

이렇게 세상을 밝고 맑은 눈으로 보는 손자의 눈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걱정 반 근심 반으로 꼼꼼히 생각 해 본다. 손자는 그 후 성장하여 5년 전 여름방학 중에 한국에 머물다 돌아가면서 할아버지에게 그간 느낀 소감을 말해 주었다.

“서울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너무 커요. 사람을 밀치고도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것이 미국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미국은 투수 중심이라 재미가 없는데 한국구장은 홈런도 많고 응원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지하철이 너무 재미있어요. 교통신호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자동차가 끼어들기 하니 운전하기가 위험하다고 말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2개월간 우리가 보여 준 복잡하고 번잡한 서울의 모습이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하고 있나 보다.

현대문명은 인류가 우주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생존이 가능한 실험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생물 생존이 가능한 위성을 발견하기 위한 위성탐사가 진행되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달은 인간의 노화현상 방지와 병 치료에 새 전기를 맞아서 인간의 생명연령을 100세로 연장하고 있다. 레이저 기술의 발달은 과학, 군사, 의학, 산업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해자원 개발을 위한 자원 확보경쟁과 원유부족 해결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셰일가스 개발은 연료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인류는 더욱 살기 좋고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노력에 정진하여 왔다. 그 결과 많은 진전이 이뤄졌지만, 이러한 노력의 부산물이 인간의 삶을 피폐화 시키는 逆機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도 인간의 인과응보 탓 일까? 산업화로 지구가 오염되어 기후이변과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빙하지대가 점점 감소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과 흑한으로 자연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 2100년경에는 지구 온도가 3°C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100년간 1.5°C 상승 하였는데……. 온도상승이 적어보이지만 이는 지역적으로 보면 대단한 이변이다. 금년 여름 일본과 중국에서는 40°C의 폭염으로 熱 환자가 발생하여 수십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43°C가 된다고 가정 해 보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지금도 수몰되어 가는 태평양의 섬나라가 있지 않는가?

요즈음은 아열대식물과 동물들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시작하여 금년여름 제주도과 남해안 해수욕장에서 열대성 살인 독성해파리가 출현하여 한때 해수욕장이 폐쇄되기도 하였다. 東·西 해안에서 명태와 조기잡이 어획고가 감소하고 있어서 어부들이 울상이다.

그리스 이외 몇몇 국가에서 야기된 유럽의 경제위기는 국가재정이 파산지경에 다다르고,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청과 연금축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정년퇴임 세대는 개혁에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와서 생활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2·3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걱정이 앞선다. 지금 우리세대도 살기 힘든데 별걱정을 다 한다는 편잔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경쟁률이 100:1 정도의 세상이 되었다. 유치원 입학 때부터 과외수업 때문에,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중·고교 때까지 사교육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강남엄마들의 하소연은 정말 서울의 강남엄마만의 목소리 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피나는 생존경쟁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하였다. ‘할아버지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손자들이 과연 편안히 살아 갈 수 있는 길이

본부동창회 제작 : 김석백(국민은행) 651401-04-343779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나만의 걱정일까? 힘들고 험한 세상을 알고 있는 할아버지로서 손자가 잘 자라서 건전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희망이자 자그마한 소원이다. 이러한 소망도 욕심일까? 그렇다면 언제쯤 손자의 눈도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세상속의 눈으로 변할까? 손자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변하였다’ 하더라도 걱정스럽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희망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어려운 역경에 부딪치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뤄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것들을 이뤄냈다. 우리는 그 동안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지와 투혼으로 일어나서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사막에서, 월남의 정글 속에서 숭한 역경을 헤치며 피와 땀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TV등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세계 최고 첨단기업이 되었다. 현대차는 세계 5위의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업이 되었다. 이외에도 세계 최고의 IT선도국, 조선, 건설, 원자력발전산업, 방위산업, 의료산업, 생명공학 등 세계 선두 그룹분야가 부지기수다. 더욱이 지구촌 곳곳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내어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여 왔다.

모두 無에서 有를 창조한 것이다. 6.25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이뤄낸 기적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8위의 무역대국, 10위권의 경제부국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새마을운동으로 경제발전과 동시에 민동산에서 산림녹화가 성공한 유일한 국가가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 Green 환경운동의 선두주자인 셈이다. 더욱이 외국의 원조만 받던 나라에서 외국을 원조하는 국가로 당당히 탈바꿈 하였다. 세계가 驚異의 눈으로 칭송하고, 후진국들은 한국을 모방하여 성장하려고 하는 모범국가 되었다. 물론 否定的인 면도 있다. 정치후진성과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고, 법치주의의 철저한 실천도 필요하다. ‘有錢無罪 無錢有罪’, ‘有錢無稅 無錢有稅’ 라는 유행어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부조리 또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否定的인 면보다 肯定的인 면이 훨씬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의료 진료와 주민생활개선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인들, 메이저 대회 3연승을 거두며 LPGA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박인비, 경기마다 예술의 경지라고 칭송 받는 김연아, 미국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스타 류현진 ,아시아의 한계를 뛰어 넘는 박태환, 예술분야의 세계적 가수 조수미와 정경화 가족. 이들 뿐만 아니라 유럽 리그에서 맹활약하는 축구스타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국인이란 사실이 자랑스럽다. 한류를 주도하는 K팝이나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의 수장도 여럿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기업들이 앞 다퉈서 해외지사장에 한국인을 잇달아 발탁하여 투입하고 있다. ‘맴고 당찬 한국인들을 전 세계에 투입하라’는 특명이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성공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고 성공에만 안주해서도 안 된다. 한국인의 가슴속에 도사린 開拓과 挑戰의 유전인자를 일깨워야 한다. 새로운 분야 개척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세상은 스마트폰 전성시대를 맞아서 24시간 실시간 처리할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비약적으로 넓어진 글로벌무대가 활짝 열렸다. 반면에 이 시대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과거의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많은 대학생들의 지상과제가 취업이다. 그나마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만 바라본다. 이

**김학영의 가림산방 : 네이버에 ‘가림산방’ 을 입력하여
상식이 통하는 세상(가림산방)을 확인하세요.**

러한 현상은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의대, 법대졸업 후 의사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시 문을 두들겨서 합격한 후 공무원과 전문의사가 되는 것이 사회진출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은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시작하였는데, 과학을 전공하겠다는 학생들은 점점 감소하여 신기술 개척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세계무대를 보라! 우리나라의 좁은 무대에서 갇히지 말고, 젊은이들이여!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나의 손자가 성장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우리나라의 좁은 무대에서 꿈을 펼치기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기를 원한다. 글로벌 무대는 계급이나 핸디캡이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만 승부한다. 학연, 지연,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 외국어 구사능력, 다문화 경험과 이해도, 리더십과 협상력이 글로벌무대에서 이길 수 있는 관건이다. 누구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인 결코 될 수 없다. 다양한 능력을 쌓고 그걸 적재적소에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서 일자리와 미래를 찾지 말고, 우리의 상대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경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젊은이들이 활약한다면 한국의 국격도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한 후 세계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는 젊은이가 되기를 꿈꾼다. 할아버지는 나의 손자에게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대 해 본다. 너무 큰 과욕 일까? *

KBS 비타민 500회특집 '명의를 선물'에 특별출연

의학박사 이홍규 동문

이홍규 동문

지난 8월28일 저녁,
KBS 건강프로
비타민 500회 특집에
이홍규 동문이 출연하여
환경호르몬과
당뇨질환에 관한 폭넓은
의료자문을 하였습니다.



재경동창회 카페 : <http://cafe.daum.net/mshs21>



8월 월례회 동정은
 김덕조 친구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다는
 소식부터 알려려니
 착잡한 심경 그지없다
 지난 8월 24일,
 부음을 접하고
 부산의 이의승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친구들과
 마산에서 달려온 우용태 회장과
 5명의 친구들이 만나
 영락공원의 빈소를 찾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조문인사를 나누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일까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빛에 모두 사그라질 것만 같았던 8월. 유난히도 무더운 나날, 집에서 꼼짝 않고 모임을 잇은 줄 알았는데 20명이 “이야, 진짜 덥다. 다 우찌 지낸노?” 손잡는 친구들이 반가웠다.

이의승 회장이 모임인사로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만남을 가진 게 고맙다”고 하며 자주 못 만나던 하만웅 이가 와 주었고 그 옛날 ‘마산 시민 카바레’ ‘석빙고’ 하면 생각나는 정종길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하며 참석, 신고시켜 모두에게 반가움의 박수를 받았기에 두 친구가 고마움의 답례로 식사대 찬조를 해주었다.

그리고 ‘일본여행은 좀 더 질 높은 기획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더위 속에서도 아직껏 생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가 자랑스러웠다. 김효석이는 충청도 생활을 접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 한다 했고 박진형이는 부부간에 곳곳이 건강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했다.

건강 때문에 참석 못한 친구들의 안부얘기들이 오갔다. 9월에는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낸 명절 뒷얘기를 나눠야겠다.

가을... 생각만하여도 아름다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엔 좀 더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2013년의 지루했던 8월을 보내면서.....

참석자<20명>

권귀옥 김지남 김형래 김효석 김형래 문호기 박영섭 박진형 송길영 이강복 이의승
 이장우 윤성업 정현경 정종길 조영민 조창식 조창제 하만웅 황선치

|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 | | 2013년 8월 | | |
|--------------|-----------|--------------------------------|----------|-----------|------------|
| 수 | | 입 | 지 | | 출 |
| 적 요 | 금 액 | 비 고 | 적 요 | 금 액 | 비 고 |
| 협찬 | 1,600,000 | 회보제작협찬금 서울 100만원 부산 60만원 | 식대 | | 없음 |
| | | | 회보제작 | 210,000 | 회보인쇄 및 봉투 |
| | | | | 55,280 | 발송비 |
| | | | 경조사 | 100,000 | 김덕조 상가 |
| | | | | 50,000 | 유류비지원(김정수) |
| | | | 수당 | 150,000 | 총무 |
| 수입계 | 1,600,000 | | 지출계 | 565,280 | |
| 전월이월 | 4,392,367 | | 차기이월 | 5,427,087 | |
| 합 계 | 5,992,367 | | 합 계 | 5,992,367 | |

본부·서울·부산동문 대마도 산행 및 관광여행 안내

2013. 11. 1 ~ 3(2박3일)

| | |
|---|---|
| 일시 | 2013년11월1일~3일(2박3일) |
| 행선지 | 일본 대마도 일원 |
| 여행사 | 백두산등산클럽(055-296-3738, 팩스 055-295-3738) |
| 집행 및 예약 | 김성규(010-5577-6636, 팩스 055-241-3365) |
| 경비 | 35만원/1인당(부대비용 없음)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집결 | 08:0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 마산지역출발 : 2013년11월1일 07:00 |
| 일 정 표 | |
| 1일 | 09:30 부산 출항 - 11:40 대마도 도착 아리아케(유명산 558m 3시간) 등반 후 관광 |
| 2일 | 시라타케(백악산 519m 4시간) 등반 후 관광 |
| 3일 | 전 일정 관광 후 13:30 히타카츠 출항 - 14:40부산도착 |
| ※ 마산도착은 17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자 김성규(쌤지) 동문에게 문의바람 | |

본부·서울·부산동문 중국 구체구/모니구/황룡 관광여행 안내

2013. 11. 7 ~ 12(4박6일)

| | |
|--------------------------|---|
| 일시 | 2013. 11. 7~12(4박6일) |
| 행선지 | 중국 구체구 / 모니구 / 황룡 / 낙산대불 등 |
| 여행사 | 백두산등산클럽(055-296-3738, 팩스 055-295-3738) |
| 집행 및 예약 | 2013. 9. 30까지 김성규(010-5577-6636, 팩스 055-241-3365) |
| 출발 | 13:00 마산출발, 20:00 인천공항출발 |
| 경비 | 89만원(부대비용 없음)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일 정 표 | |
| 1일 | 2013년 11년 7일 20:00 인천공항 출발 |
| 2일 | 중국 성도 도착 - 구체구 이동 |
| 3일 | 구체구 전 일정 관광 |
| 4일 | 구체구 출발, 송판고성, 무현 경유 성도 도착 |
| 5일 | 성도 출발, 낙산 대불관광, 낙산, 성도 귀환 |
| 6일 | 00:20 성도 출발 4:30 인천 도착(마산도착 11:00 예정) |
| ※ 마산출발 : 마산역 13:00(관광버스) | |

※ 마산출발 : 참가 희망자는 9월 월례회까지 신청바랍니다.

동문동정

동문동정

♣ 김덕조 동문

서울동창회 소속 김덕조 동문의 휴대폰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010-4972-7818

♣ 김덕조 동문

지난 8월24일, 부산동창회 소속이던 김덕조 동문께서 지병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조문이 이어졌으며, 본 부회장단에서도 참석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에라 모르겠다 젓꼭지에 앉아 엉덩이로 비벼대면 멀리서 보고 있을 사람들은 온갖 상상들을 하며 좋아 하겠거니 생각하며 한참을 비비적거리며 경관을 살피니 북동쪽에는 향로봉이 허연 근육을 자랑하며 섰고 서북쪽으로는 연신내 시가지가 남쪽 끝까지 펼쳐져 시원함을 선사해 준다.

옆에 있던 권영집 친구는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는데 바보같이 바로 내려갔다고 차마 면전에서서는 대놓고 말 못하고 허당이라며 꼬집는다.

그래놓고는 뒷감당이 되지 않음을 아는지 허당이라고 한말은 전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다. 이렇게 허물없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며 혈래 혈래 내리니 어느새 불광공원지키퍼가 수고 했다고 인사를 건넨다.

바로 밑에는 「웃산불광사」라는 이름표가 붙은 절집이 조그맣게 자리를 잡았고 더 밑에는 「불광사입구」 팻말 아래에서 먼저 내려간 주영국 친구, 이상환 친구, 이석우 친구, 박용시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나 허당이라 불린 친구는 빠졌는지 보이지 않더라.

서울산행팀들은 정해진 코스가 있어 바로 근처의 8층 사우나에 들어서니 허 장군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다. 천천히 땀을 씻고 나와 택시에 오른다. 계획대로라면 콩국수로 때울 것을 모처럼 온 손님 대접한다고 보신탕집으로 U턴을 한다.

보원집에 들어서니 주인장과 서빙 아줌마께서 반기는걸 보니 어지간히도 들락거린 눈치드니 허물이 없다. 오늘은 특히 탕이 아닌 전골로 포식을 하고 헤어짐이 아쉬워 죽을 치는데 그제야 허호 친구 오늘 내가 잘못 짚어 C급들과 함께 해서 답답해 죽을 뻔 했다고 은근히 힘자랑을 하니 동행했던 친구들은 그저 입만 삐죽거릴 뿐이다.

한참을 떠들다가 자리를 털고 아쉬운 귀가를 서두른다.

이상환 친구는 집이 근처라 걸어서 내려가고 모두가 불광지하철역으로 들어서는데 이석우 친구가 아까부터 족두리봉을 영락없는 유방모양이라고 우기며 보면 볼수록 풍만한 젓가슴과 젓꼭지에 감탄을 하고 침을 흘리더니 결국 아껴 모아두었던 용겻물을 뺄 요량인지 화장실로 달리며 너그들 먼저 가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진다.

(다음호에 이어짐)

회보제작 협찬금 감사합니다.

각지역 동창회에서
2013년도 회보제작분담금을 완납하셨습니다.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알고 보니 국립공원 내 입장료를 받았던 곳이란다. 다시 5분여를 달려 왼쪽 탕춘대길로 방향을 틀어 몇 발작 올라 커다란 바위에 기대어 서서 족두리봉을 바라보면 젓가슴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젓꼭지 옆에 사마귀가 하나 붙어 있어 저놈이 눈에 거슬린다고 하니 서종성 친구는 그렇잖아도 우리가 저 사마귀를 수술하려고 자금을 마련 중이라고 능청을 띤다.

서해안으로의 여행과 (3) 족두리봉 장정지

몇 발작 나서면 높은 바위에 30m쯤의 로프가 걸려있고 타고 올라서서 메모를 하고 있으려니 두 아주머니가 소나무를 세고 있는 중이냐고 말을 걸어온다.

그렇다고 대답을 해 주고 힐끔 쳐다보니 별로 반반하지가 않아 말 시키면 지금까지 헤아려 놓았던 숫자를 까먹는다고 말 시키지 말라하고 농을 몇 마디 따먹는데 옆에 있던 권영집 친구는 그것도 부러운지 “야! 니한테는 아직도 대쉬하는 여자들이 있어 좋겠다.”며 부러운 눈짓을 한다.

조금만 더 올라 능선에 서니 계획대로라면 모두 같이 직진하여 계곡으로 흘러 작은 능선으로 내려야 하는데 서종성 친구는 처음 온 나를 위해 왼쪽의 족두리봉으로 안내하고 갈 테니 다른 친구들은 하산지점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하니 친구들이 흔쾌히 동의를 하며 우리 B급들은 바로 내릴 테니 너그들은 족두리봉을 거쳐 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며 그래도 체면이 구겨지는지 키가 제일 큰 친구는 내려가면서도 B급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다짐을 받는다. 그리하여 조재호 친구, 권영집 친구 그리고 서종성 친구를 앞세우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다보니 어느새 족두리봉이 바로 코앞에 우뚝 서있다.

바위를 타고 오르지 못할 노를 들이라 오른쪽으로 돌아 암릉을 타고 내리면 자연석을 깬 계단길이 이어지는데 평지에 길들여진 심장은 그새 펄떡거리기 시작하나 그것도 잠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암릉을 기어오르면 젓꼭지를 마음껏 어루만져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팔을 벌려도 다 들어오지 않으니 별시런 감흥도 없다.

7쪽에 이어짐 -

2013년 9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3일(수) 오후 6시30분
장소 : 대구식당(244-3857)
동창회사무실 2층



부인회

일시 : 23일(월) 12시 30분
장소 : 하성이불(223-6160)

